

보도시점 2026. 9. 1.(화) 10:00 배포 2026. 9. 1.(화) 09:00

AI전환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 재경부, 중기중앙회와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AI전환」 세미나 개최
- 허장 차관,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면 AI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포용 생태계 조성 필요”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9.1일(화) 10:00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AI전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축사에서 “AI 전환에 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면 AI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포용적이고 생동감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특히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에서 중소기업의 적응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GPU 등 컴퓨팅 인프라 지원,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역 특성별 중소기업 AI 도입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AI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때 비로소 모두의 성장도 실현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강연자로는 전략경제자문단의 박영선 자문위원장과 김용진 AI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장, 김준하 AI로보틱스 분과위원장이 나섰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산업 경쟁은 같은 제품에 얼마나 뛰어난 지능을 담느냐의 싸움”이라며 “한국형 AI 컴퓨팅 스텝 구축,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 육성, 국가적 차원이 AI 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AI 내재화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만이 미래 시장에서 생존하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략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 : 강연 주요 내용 >

	강연자	주요내용
강연1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AI 반도체 2막-한국의 전략경제 방향 - 온라인 검색 중심에서 AI 에이전트 중심 경제로 전환될 전망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제조, 금융, 의료 등 전 산업의 내재화 필요하며 제품을 만드는 공장과 지능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모두 구축 필요
강연2	김용진 (서강대 교수)	AI 에이전트 커머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중소기업 대응 전략 - 커머스의 주체가 사람의 클릭에서 AI의 실행으로 이동중, AI 에이전트의 권한·한도·책임 문제 등을 명확화할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자원·인력·데이터가 부족해 AI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 → 개별 기업 지원보다는 생태계 단위 지원 필요
강연3	김준하 (GIST 교수)	피지컬 AI 비전과 중소 제조 AX 전략 - 지금까지의 AI는 LLM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피지컬 AI 중심이 될 전망으로, 현장 데이터의 중요성 확대 -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표준화, 국가의 데이터 가치평가와 학습 데이터로의 공유 필요성 제언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4-215-4930)
		담당자	사무관	양지연 (didwldus48@korea.kr)
	중소기업중앙회 디지털전략실	담당자	차 장	최성환 (02-2124-3251)

참고 1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 개요

- ☐ (행사명)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전환」 세미나
- ☐ (일시/장소) '26.9.1(화) 10:00~11:50 / 중기중앙회 B1F KBIZ홀
- ☐ (주최·주관) 재정경제부 · 중기중앙회 공동주최
- ☐ (참석) 박영선 위원장 등 전략경제자문단 위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한성대 교수), 중소기업 등 150명 내외

< 세부 프로그램(안) >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5')	환영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0:05~10:10(5')	축사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10:10~10:15(5')	축사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10:20~10:50(30')	[강연1]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대응방향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10:50~10:55(5')	질의응답	
10:55~11:15(20')	[강연2] AI에이전트 커머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중소기업 대응전략	김용진 교수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커머스 분과위원장
11:15~11:20(5')	질의응답	
11:20~11:40(20')	[강연3] 피지컬AI 비전과 중소 제조 AX전략	김준하 교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 전략경제자문단 AI/로보틱스 분과위원장
11:40~11:45(5')	질의응답	
11:45~	폐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2차관 허장입니다.

오늘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AI 전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박영선 위원장님과 전략경제자문단 위원님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님,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제신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0년대 PC보급 일반화와 90년대 인터넷 보급 등
무진히 진행된 정보혁신은 이제 우리의 눈앞에
인공지능이란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AI는 우리 사회경제의 정신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슈페터는 그의 역서 ‘경기변동론’에 소
이러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는
혁신적 기술에서 비롯된 경기변동을
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명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역사가가 바라볼 때 현재의 시기를
AI의 거대한 콘트라티에프 파동의 초입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과 고용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AI대전환은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AI 전환에 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면
AI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포용적이고 생동감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는
중소기업의 적응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며,
정부의 지원도 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동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확보한 GPU 등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의 AI 에이전트 개발과
유망 AI 스타트업의 기술 상용화 등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중소 제조 공정의 AX를 지원하고,
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특성별 AX를 지원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도 AI 활용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공정·라인 단위, 사업 단위 AI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변화는 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문명의 발흥은 항상 시련과 함께합니다.
도전과 응전은 한 쌍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AI 대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부 전략경제자문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예산과제 제안,
두 번의 성공적인 전략경제 포럼 개최 등
그야말로 ‘열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도 저희 자문단의 발제와 제안이
참석하신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AI 전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